



건보공 서울강원본부, 저소득층에 위생용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기관(42개소)에 위생용품 및 물티슈 등 입원에 필요한 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휴넷 성장관리 앱 '그로우' 빅이슈코리아와 기부 캠페인

휴넷의 성장관리 앱 '그로우'가 빅이슈코리아와 함께 특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5일 휴넷에 따르면 그로우 앱에서 '빅이슈' 잡지를 읽는 순간을 인증하면 ID 1개당 1000원의 금액을 합산해 그로우가 빅이슈코리아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홈리스가 판매하는 대중문화 잡지 '빅이슈'는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빅이슈코리아로 창간해 홈리스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이 '빅판(빅이슈 잡지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잡지 판매 금액의 절반이 판매원에게 돌아간다. /김승호 기자



블랙야크-포스코,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맞손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포스코 포항제철소(이하 포항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협회(이하 협력사협회)가 투병 페트병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블랙야크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사업장에서 나오는 페트병을 수거해 '플러스티크(PLUSTIC)'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블랙야크



빈센,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상' 수상

친환경 전기·수소 소형선박 제작 전문업체인 ㈜빈센이 지난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국내 최초 상용화 앞둔 수소전기보트 하이드레제니아와 빈센 이철환 대표. /빈센

피자알볼로 보호종료아동 '홈캠핑키트' 전달

피자 브랜드 피자알볼로가 성인이 되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홈캠핑 키트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피자알볼로는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와 협약을 맺은 이후로 매달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구성된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에는 '홈캠핑'을 테마로 해 미니 롤테이블, 의자, 각종 조형 제품 등의 캠핑 아이템과 피자알볼로 상품권을 보내 여행을 가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은미 기자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김 보 락 변호사의 노동법을 읽기

파견법상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자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

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다243935(본소), 243942(병합) 판결).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이고, 피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파견법상 사용자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원고들이 피고의 필수적,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엔진 조립 업무 외에도 가공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도급비가 지급되는 등 도급계약의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장, 기계 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차했고, 고유한 기술, 자본 등을 투입하거나 피고 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법무법인 바른

유한킴벌리 사회·환경문제 해결 소셜벤처 육성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 본격화 피피엘·MYSC와 업무협약 체결

유한킴벌리가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소셜벤처를 적극 발굴해 육성한다.

이를 통해 매년 5개 안팎의 친환경·사회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5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단체 등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

유한킴벌리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CSR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며 소셜 임팩트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측은 사단법인 피피엘, MYSC와 함께 '유한킴벌리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유한킴벌리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는 시드 단계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스타트업 성장에 따른 투자 수익은 투자 재원으로 재투



(왼쪽부터)MYSC 김정태 대표, 사단법인 피피엘 김동호 이사장,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가 '그린 임팩트 프로젝트'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입한다.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는 유한킴벌리 생활혁신연구소와의 협업 기회도 마련한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10여 년간 시니어 일자리 기금을 출연해 고령화 문제해결과 시니어 비즈니스가 연계된 공유가치 창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38개의 소기업 육성과 함께 1000개 이상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시니어케어매니저 육성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같은 경험들은 그린 임팩트 투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CSR 사업에 도전하는

밀거름이 되고 있다.

유한킴벌리 CSR 책임자는 "기후 변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 현안들은 국가적 과제이자 기업의 과제이기도 해 소셜 임팩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를 벤처 생태계 발전과 함께 사회,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아마존웹서비스 임직원 IT 역량 강화 '스킬즈 길드' 도입

한진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AWS 스킬즈 길드(Skills Guild)' 프로그램을 도입, 구성원들의 IT 역량 강화에 나선다.

5일 한진에 따르면 AWS와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IT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프로그램인 'HIWAY(Hanjin Innovation WAY)' 킥오프 행사를 지난 1일 열었다.

서울시 중구 한진빌딩에서 진행된 HIWAY 런칭 행사는 한진 노삼석 사업총괄 대표이사, 류경표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조현민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부사장과 AWS 코리아 함기호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HIWAY는 고속도로(highway)처럼 빠르게 한진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가는 데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의 개념과 활용 사례 교육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롯데칠성-카이스트 스마트 비어 팩토리 클러스터 구축 나선다

중소규모 브루어리와 상생 협업

롯데칠성음료가 카이스트(KAIST)와 손잡고 'KAIST STAR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비어 팩토리 클러스터 구축' 관련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중소 규모의 브루어리와 상생 및 수제 맥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맥주 클러스터 프

젝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KAIST의 STAR(심블릭 트랜스포메이션 포 AI-인퓨즈드 리얼리티)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 공유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으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롯데칠성음료에서 위탁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 생산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 등

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다양한 제품을 한 공장에서 생산해야 하는 제조 환경의 개선점을 KAIST의 프로젝트 기반 교수 학습 방식으로 풀어내 스케줄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대기업-중소 브루어리가 함께 성장하는 새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인사

◆강원도체육회 ○실·과장급 승진 △기획경영실장 직무대리 오찬주 △스포츠진흥과장 류열성 ○팀장급 전보 △스포츠복지과 박병구 ○팀장급 승진 △스포츠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김명수 △기획경영실 기획예산팀장 허용호

부음

▲박유진씨 별세, 김현엽(하나금융투자 서초WM센터장)씨 부인상, 준수·혜원씨 모친상 = 5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599-4634.